

한국현대가구에 있어서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적이미지의 적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and Methodology of Korean Traditional Images based on Traditionalism in Korean Modern Furnitures

한경희*/ Han, Kyung-Hi

Abstract

We have lost our true characteristics without being grown and development of our traditional beauty in state of drawing into a whirlpool as the environment of western culture. So, to be existed for self-sown capability of our traditional culture, we'll have to keep up with the unique and creative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design through the synchloization between 'Traditionalism in our already westernized life' and 'Korean identity in worldwide culture' based on independent position by correct view of worth, as for the escape from attitude of receive on western culture in recklessness. Hereupon, first of all, after review of furnuclation backround and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furniture to be established by an ancestor, based on this and extract the conceptual language, it was presented past

published works as for the approaching method toward physical form aspect by use of pattern of modern access method.

Secondly, it was the symbolic approaching from method based on traditional and cultural context. Gradually, the embodiment pf traditional image, in today's features of our furniture loosing the particular cultural identirty is very important aspect, and beside above mentioned two methods, it should be investigated as for the diversified approaching study. Thereafter, we'll have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our modern furniture in global wordwide, for seek the beauty being interrelated form past historical communications, under the circumstance of original and future-oriented value.

키워드 : 가구, 전통성, 한국적이미지

1. 서론

가구는 미와 용도의 두가지 기능을 만족시켜야하는 절충적인 복합 예술이다. 즉 인간의 육체적·심리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삶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생활감정을 조성하고 생활의미를 창조하는데 까지 이르고있어 가구는 실로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소유물을 지지해주고 우리의 감각까지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구는 생활하는 가운데 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상 생활안에서 하나의 문화양식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사용자의 특성 즉 사용자의 문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디자인 되어야하므로 항상 사회성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가구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과정속에서 삶의 현실을 투영하는 반영물이며 바로 그점으로 인하여 문화창조활동 범주안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좋은 디자인은 건전한 문화수용속에 그 시대와 지역문화-기후 사상 생활의식 주거문화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해야하며 점차 좁아지는 세계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 파악과 아울러 이의 계승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문화는 외국에 대한 선호,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고유의 문화의식이 방해받고 있으며, 우리가 한국인이며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망각한 채 문화의 자주성을 잃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오랜 전통속에서 선조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서구화·근대화과정 이후 점차 사라지면서 서구화한 현재의 삶과 아울러 가구의 모습 내지 종류도 함께 변하여 전통과는 단절된 채 우리 고유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통적인 정서와 생활문화를 오늘의 삶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속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우수하고 독특한 전통가구의 미와 조형의 본질을 재발견, 발전시키는 한편 독자적인 가치속에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이미지의 재창조, 그리고 우리 삶과 괴리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구'를 이룩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우리가

* 정회원, 신홍전문대학 실내장식과 전임강사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 문화적 생활속에서 전통성에 입각한 이미지의 진솔한 표현, 한국성의 구현으로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속에서 한국 고유의 개성과 미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가구디자인에로의 방법론적 접근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고의 범위는 크게 이론적 배경, 디자인 계획방법 및 사례 적용의 측면에서 분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고는 먼저 그 이론적 배경으로 전통가구의 형성배경 요인과 전통가구의 미와 특징을 관련 이론 및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고, 전통성의 재발견과 현대의 가치관을 접목시켜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방법론을 전개하면서 기존의 발표되었던 작품사례¹⁾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 본 고는 전통가구의 범위를 조선조 후기 상류층 가구를 그 이론적 배경의 범위로하고, 적용범위는 가구의 형태면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봄을 밝혀둔다.

한편 전통미를 이해하고 오늘의 조형예술 및 생활용구로의 적용과 재창조에 관련된 선행연구논문은 대부분 건축,환경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는 주로 contextualism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가구디자인분야는 전자에 비하여 숫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그 하나의 전개방법을 예로 들자면, 거실 가구(안락의자와 테이블)를 주체로하여 전통가구의 특징과 현대가구에의 적용면을 형태, 장식, 재료적 측면으로 동일하게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전통가구의 특징을 기본으로 한 직접적인 표현방법과 전통문화인자속에서 맥락을 찾아 이의 상징·유추를 통한 가구에의 적용방법으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전통성 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통가구의 형성요인

조선시대 가구양식형성은 한국주거양식이 갖는 독특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고로 본 고에서는 좌식생활의 영향과 안채·사랑채로 분리되는 주택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좌식생활의 영향

좌식생활문화의 가구는 입식과 달리 인간공학적 기준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는 사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주체자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그 인간공학적 기준에 따라 가구무게의 중심, 가구높이의 개념, 사용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좌식문화에서는 공간을 보는 눈 높이의 기준이 방 바닥과 가까이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서양의

1) 기존의 발표되었던 작품사례의 예는 전통의 수납장식장가구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그 범위를 수납장식가구에 제한하였고 또 그 작품발표 사례의 예가 많지 않은 이유로 4인의 작품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작품선정은 주로 본고의 연구자가 '94년 전통의 현대화를 주제로 가구개인전시회(‘한경희 가구전’-한마당, 1994.11.11-19)를 통하여 발표되었던 작품 중 일부와 홍대 목가구 조형과의 최병훈 교수가 개인전시회(‘최병훈 Art Furniture’ 갤러리 부산, 1995.4.27-5.12)를 통하여 전통에의 관심을 표하면서 발표한 작품 중 일부 및 연구자가 지도한 학생들의 금년도 졸업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가구를 선정함에는 본고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 제시로서 그 접근성예의 용이와 완벽성을 기하기가 적합하였고 별 무리가 없으므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가구가 다리가 긴데 반하여 우리가구는 다리가 짧거나 없는 예가 많으며, 가구구조도 사람이 앉았을 때, 무릎으로 앉았을 때, 서 있을 때의 손과 눈의 높이에 따라 각각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시킨 예가 바로 삼층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서양가구는 그 몸체가 긴 다리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성향이 위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우리의 가구는 다리가 짧으면서 몸체가 바닥 가까이 내려와 있어 그 지각성향이 아래로 향해 있다. 이는 무게지각에 있어 구조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는 「앉아있는 가구」로 모든 것이 바닥에 「놓여지는 형태」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동서양의 좌·입식 생활양식의 구조적차이로 인한 가구자체의 형태와 성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바로 이점이 우리가구의 기본적인 형성요인이 되는 것이다.²⁾

더욱이 넓고 높은 실내공간 속의 서양가구는 자연히 크고 육중하고 장식적인 면을 갖는데 반하여 우리가구는 천정이 낮고 실내도 비교적 좁아 보다 많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고 간결하게 제작된 즉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규모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좌식생활과 연계된 온돌이라는 구조는 사람들을 아랫목으로 모이게 하면서 효과적인 공간활용을 위하여 방 중앙에 놓여지는 가구는 유동성을 지니게 되었고, 벽주변의 고정가구는 그 폭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자연히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그리고 단순하면서 정선된 특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었다.

2-2. 안채의 내실가구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윤리관은 예술에 현저히 반영되어 있다. 특히 남녀유별의 관념에 의하여 한국주택의 규모도 안채와 사랑채를 기본단위로하여 나뉘게 됨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의 가구들이 그 용도와 취향에 맞게 뚜렷한 개성을 갖게 되었다.

사랑채가 남성중심의 공간으로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라면 안채는 취침 및 음식준비, 의복수발, 가족의 단란 등을 전담하는 주부중심의 생활공간으로 폐쇄적이다. 이같이 여성들이 거처하는 안채는 사회적 규율에 엄매이고 또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찾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자녀를 기르고 가정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므로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가구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안채의 내실가구는 사랑채의 정선된 선과 검소한 분위기와는 달리 색이 곱고 밝고 화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랑채용 가구보다 훨씬 화려하고 강렬한 것을 취하면서, 매만지며 잔재미를 느끼게 하는 정교함, 여성취향의 형태와 채색 - 나전칠기·화각장·자수 등, - 문양이 특징이며, 이같이 여성 취향이 갖는 채색과 문양은 민서적 미의식과 더불어 그들 생활과 직결되는 회구의 내용(多産, 長壽, 和)을 중시하면서 아름다움으로 연결되는 예이다.

사랑채가구가 지식과 풍류와 안락을 꾀하는 기물 및 서재로서의 필수품인 책과 책상이 주종을 이룬다면 이곳은 집안살림에 관련된 가구가 대부분이다. 즉 가족들 옷의 수장, 이불요와 방장 등의 계절에 따른 보관용으로 이를 위한 장롱, 고리, 상자가 기본이 되어 머리장, 반닫이 등이 내실가구의 핵심을 이룬다.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p.347-351

사실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내실용 수납가구 중 장롱의 형태는 원래 고리, 설기, 캐등을 2짝·3짝으로 포개서 사용하다가 상부의 문이 앞면으로 바뀌면서 또 사랑채의 문갑이나 책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조형의 장으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2-3. 사랑채의 문방가구

사랑채는 남성의 생활공간으로 선비들의 사색과 문화적인 공간이면서 문중회의나 외부손님의 접객이 이루어지는 사교의 장이었다. 이러한 사랑채의 내부공간은 화려하고 복잡한 것보다 소박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필연적이어서 이에 적합하도록 크지 않은 공간에 단순한 구조, 쾌적한 비례, 간결한 선을 지닌 목가구가 제작되었다. 이는 선비의 생활철학과 미적감각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의 공간과 가구에 적용된 예로서 사용자의 미의식인 소위 「格」에 의하여 규제되면서 그 격에 의한 세련미를 더했던 것이다. 「格」이라함은 선비들의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그 개념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가치 외에 선비로서의 風度, 군자로서의 德, 양반이라는 권위의식이 복합된 유희사상이 바탕을 이룬 조형관으로 남성공간 특유의 가구형태로 발전시킨 밑거름이었다.⁴⁾

더욱이 검소한 선비생활과 문방생활의 영향은 가구의 기본정신을 文氣에 두고 清供濟品으로서 호화스럽거나 사치함을 배제하면서, 주인의 人品을 닮아 성실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렇게 새로운 문화능력으로 또 세련된 조화의 감각으로 가다듬어낸 것이 바로 선비의 문방가구인 것이다.

인위적인 장식을 피하면서 간결한 선과 적절한 비례의 면분할 즉 명확한 면으로 지적되는, 또 목재의 자연상태를 담담하게 표현하여 자연 나뭇결을 최선의 미적표현으로 택한 점이 모두가 선비적성격의 일단이며 사랑채다운 운치이고 하나의 질서인 것이다. 비록 그 형태는 간결하지만 생활용품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한국인의 독창적인 조형을 이루어 한국전통목가구의 정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선비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다.⁵⁾

대표적인 사랑채가구로는 卓子和 더불어 책을 넣어두는 책장, 문방생활에 관계된 가구가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의 가구는 같은 생활감정의 한 울타리안에서 그러나 상반된 기능의 주거공간속에서 서로 견제하며 융화해가는 동질성을 간직하면서 조화를 이루었고 이 점이 한국전통가정이 보여주는 생활의 단면이요 이념의 반영으로 한국전통가구의 이중성⁶⁾으로도 지적되는 바이다.

3. 전통가구의 특징

3-1. 구조적 측면

전통가구의 특징은 '간결한 선', '명확한 면'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구조주의적 측면과 연관된 말이다. 물리적인 구조의 관점

에서 볼 때 우리의 가구는 전혀 균살이 없는 골격구조이다. 또 선과 면이 이루는 단정하고 쾌적한 구조미는 구조적인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구의 바탕이 되는 감각이다. 간결한 선은 구조체가 이루는 몇 개의 명확한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며, 명확한 면은 그 직선에 의하여 구획된 방향 및 장방형의 장식이 거의 배제된 간결한 면을 뜻한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전통가구의 질서와 균형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과 면이 이루는 구조미는 목가구짜임의 두 방법에서 연유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는 뼈대짜임(사방탁자나 총탁자)이며 다른 하나는 판자짜임(함·롱류)이다. 이는 각재가구·판재가구로도 분류되는데, 전자의 角木을 중심으로 하는 각재결구의 가구는 卓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어 개방하여 연결된 상태로서 수납의 기능보다는 장식물의 전시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후자는 함이나 상자등에서 유래되었고 각재가구의 개방된 사면을 일정한 규격의 판재로 막아 문을 설치함으로써 장의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수장의 기능을 갖는다.⁷⁾ 골재가 주축을 이루거나 골재와 판재로 구성되는 가구에서 내적으로는 견고하며 외적으로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용도와 재질 또 부위의 응력에 따라 구조와 시각적인 효과를 감안한 격조높은 기법 즉 구석구석에서 성실함을 다하는 이음새, 짜임새 등의 합리적인 결구의 견실함으로 이어진다.

구조체에서 장식을 겸한 보조체가 바로 금속장식이다. 이들 재료는 주로 무쇠, 주석, 백동으로서 모서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귀장식, 짜임새와 이음새를 견고히 하는 거멸장식, 문을 여닫는 경첩, 들어올리거나 당기는 들쇠, 자물쇠앞바탕, 고리 등의 형태로 사랑채와 안채가구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가구의 표현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던 요소이다. 금속장식은 초기의 경우, 필수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단순하고 검소하게 제작되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3-2. 형태적 측면

우리의 전통가구는 형태자체가 단순하다. 이는 시각적인 형태미에서 오는 단순함뿐 아니라 구조와도 관련된 것으로 혹자는 우리의 가구에 첨예한 형태나 구조는 없다고 그 단정가능성을 표하고 있다.⁸⁾

골재와 판재로 이루어진 선과 면의 배분은 단정하고 간결하면서 쾌적한 데에 특징이 있으며 목가구의 입면구성원으로서 동일한 면구성의 단일요소들은 면분할에 있어 질서를 포함하고 있고, 반복대칭됨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고 정형적이고 대칭적인 짜임새는 좌우대칭의 균형미를 이루고 있다. 균형은 면분할에 의한 形과 방향, 그리고 목리문, 금구장식의 표현을 시각적 균형의 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대칭규제의 美는 기능상 필요한 문의 구조, 설합의 위치를 간소화시킴과 단정하고 간결한 면분할을 이루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상·하·좌·우로 짜임새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윤곽에서 보여주는 간소한 장방형의 비례미는 실내공간과 사

3)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pp.119-121

4)김경옥, 이조시대 사랑방가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2, p.84

5)이종석, 1986, p.108

6)이종석, 1986, p.100

7)이종석, 1986, p.199

8)김영기, 1991, pp.352-3

용자와의 긴밀한 상관관계에서 최적의 규모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 전통가구에서 사용된 비례실측결과 황금비와 自乘根比 내지 정방형의 비가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의상상 중요한 곳에서는 이른바 황금비가 면분할의 정연한 질서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⁹⁾을 볼때에 형태의 단순화속에서 면분할의 비례가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의 척도를 피하였다고 본다.

이같이 비례미를 추구한 면분할과 대칭균제의 木理문양의 배려를 보여주는 형태미는 자연의 일부이기를 간구하는 우리 조상의 낭만이며 어떤 수용공간에서도 미적 기능을 발휘하며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열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가구에 있어 열려진 형태와 닫혀진 형태이다. 사방탁자와 같은 각재가구들은 기동결구로만 이루어져 있어 개방적이면서 경쾌한 다소 현대적인 이미지로 열려진 가구, 열린상자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장롱과 같은 판재가구들은 완전히 밀폐되어 형태가 주는 量感의이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면서 닫혀진 상자로서 은밀한 형태이다.¹⁰⁾ 그러나 탁자장, 문갑 등의 몇몇가구들은 이 열려진 형태와 닫혀진 형태를 한 가구에 담고 있어 더욱 색다른 조형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어떤 보편성 있는 아름다움과 조화의 일정한 척도에 맞추어 가구를 제작하지 않았다. 아름다움과 조화를 위한 일정한 기준과 척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목철가구는 저마다 규격이 다르고, 천태만별이다. 더욱이 가구는 전업의 공방에서 제작해 판매하기 보다는 각 가정에서 목수를 불러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적너적 목재의 재료를 갖고 시작하기 보다는 한정된 나무 재료로 제작해야 하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규격상 똑같은 물건이 없게된다. 또 가구의장면에 있어서도 각 목수가 가진 개인의 기본적에 의하여 짜여짐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이에 따라 틀에 박힌 통일된 규격제품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균형 감각 내지는 안목에 의하여 제작되었던 것이다.¹¹⁾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비규격화의 특징속에서 한국가구는 좌식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인 기준인 사람의 키와 한복의 치수, 책의 크기 또는 곡식의 용량 등 생활속에서의 수장품을 기본으로하여 규격화를 피하고 있고 또, 한 가구속에서도 제작의 편의를 위하여 문판, 취벽칸, 머름칸 등의 규격화, 무늬판과 뼈대의 규격화로 각각 생활속에서의 규격화, 제작상의 규격화를 이루고 있다.¹²⁾

좌식생활의 주택구조에서 주택의 창호가 방바닥에서 38Cm높이의 문지방을 초과할수 없음을 맞추어 낮은류의 가구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층장, 반단이, 문갑, 책상 등도 한국인의 앉은 키인 75Cm가 합리적으로 감안된 규격인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신장을 164Cm로 기준하여 신장과 눈높이를 감안,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160Cm이상의 대형장롱은 쓰는데가 극히 드물었다. 이 외

에도 장롱의 측면 폭 역시 한복의 치수 및 접는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책장도 책의 크기와 관련하여 그 규격에 따르고 있음은 사용자와 수장되는 기물의 척도에 따라 규격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전통가구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리의 조형의식과 관련된 독특한 정신내지 미감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연미 : 조선의 풍토와 생활의 정서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그대로를 재현하려는 데에 기초하여 가구 역시 자연을 추구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담고 있다. 화려한 칠·장식을 대신하여 자연의 나뭇결을 최대한 살리는 온화한 자연목재의 시각적 효과속에서 인공적인 장식성, 인위적인 조형을 최소한 줄이면서 어느분야보다도 자연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표하고 있다. 인위적인 기교로서 장식을 가하기 보다는 기능에 충실한 의장을 중요시하였고, 재료 자체에 충실한 재질감, 색은 목재의 자연상태에서 주는 담담함으로 이어져 자연적인 의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점은 한국적 조형기질로 무기교의 기교, 계획적인 비정제¹³⁾로 이어지고 가구의 표현처리에 나뭇결의 원형을 살리면서 장식이나 과도한 잔재주를 가급적 억제하려는 간결·소박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생활미 : 가구는 사용자의 의식구조와 생활본능이 양식화되어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자연히 생활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 전통가구도 역시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구로서 제작되었으며 좌식생활로 인하여 몸을 지탱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의 가구가 생활에 필요한 기물의 수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자체의 목적이 장식용이라기 보다는 실생활의 수납에 초점을 맞추어 간편함과 편리함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의장장식은 가급적 줄이면서 도구로서의 기능이 우세하여 실용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순미 : 시각적인 형태미에서 오는 단순함 이는 자연의 일부이기를 갈망하는 우리 조상의 낭만이었으며 이 단순한 표현속에 약간의 비합리적이거나 불편한 점은 외면하려하였다. 형태는 그저 단순한 사물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心象들의 공통된 개념이 형태적으로 주조된 것을 이르며, 여기서의 단순성도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간적이며 전체적인 일종의 형태의 본질에 대한 해명으로서의 단순성으로 모든 조형예술, 생활세계속에서 지향하는 단순성과 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가구도 단순성을 지향하는 의식속에서 형태 뿐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과 소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교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¹⁴⁾

4. 현대가구에 있어 전통적 요소의 적용방법

4-1. 전통의 의미와 계승

전통이란 어떤 규범이나 행위, 가치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전해 내

13)유영희, 조선시대 사랑방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적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주생활학과, 1986, p.17

14)김영기, 1991, pp.356-358

9)배만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p.69
10)김정재, 박규현, 조형론 - 인간환경을 중심으로-, 기문당, 1991, pp.104-105
11)이종석, 1986, p.51, pp.67-68
12)이종석, 1986, p.79, p.196, p.199

려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틀이며, 미래에로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동시에 역사속에서 새로움을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의 전통적 표현의미는 과거로부터 전래되어온 자신의 것인 동시에 새로운 형태창출을 위한 기초이다.¹⁵⁾

또한 전통이란 지나간 오랜기간에 걸쳐서 창조되고 계승되어온 형식 그 자체, 혹은 그것을 낳고 지탱해 온 디자인 방법과 이데올로기를 가르킨다. 지나간 모든 것이 전통은 아니며 현재의 창조에 있어 존재, 검증의 의의가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길게 계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¹⁶⁾ 70년대이후 우리나라는 건축을 비롯한 여러 디자인 부문에서 주체적인 방향을 위하여 또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창조성을 위하여 우리의 전통계승발전문제를 제창하였으나 당시에는 사회의 보편적 풍조와 외면된 채 전문분야에서만 해당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서 한국사회는 두가지 큰 변화를 겪는데 이는 진정 서구화되어가는 경향과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과 확산이 문화, 예술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이 두 경향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 전통논의도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서구화와 전통논의는 이제 더 이상 반대되는 현상이 아닌 동일한 테두리 안에서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낳는 요인으로 현대문화예술의 특징적 경향인 다원주의, 신주관주의, 탈규칙화 경향을 들 수 있다. 다원주의시대의 현대예술에서 서구화는 산업화가 아닌 보편화를 의미하며 이 보편화는 각 지역문화단위의 특징이 가미된 복층문화를 뜻하면서, 이제는 서구화와 전통논의는 지역문화 단위를 형성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하나의 구성요소인 것이다.¹⁷⁾ 따라서 서구화를 전통과의 단절을 보는 이분법구도에서 벗어나 이 시대전통으로 받아들여려는 새로운 해석하에 옛것과 새것의 관계속에서 우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전통성의 표현은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古來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흐름의 맥을 이해하고, 근처에 내재되어 있는 멋(美的)을 파악하면서 그 기본 조건위에 지금의 사회적상황이 요구하는 시대적 감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함에 그 표현의 원리를 두어야 한다. 즉 과거의 맥락속에 현재가 요구하는 시대상황을 수렴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통성의 계승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성의 파악을 위해서는

첫째, 전통성 창출을 위한 가치기준을 과거의 답습이라는 1차적 모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맥락을 근거로하여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표현의미를 정립해야하며

둘째, 그 지역이나 나라의 자연적 특성 -지리·지형·지정학적 여건 및 사상 및 종교적요인들에 의한 내적표현 가치기준을 파악하여 표현을 위한 인자 결정요인들을 찾아야 하고

셋째, 현재사회와 문화적특성을 분석하여 예술적요인들을 정리하여 이를 기본으로 전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요소가 수렴될 수 있는 가변성과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미적감응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¹⁸⁾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있다. 좌식 생활에서 비롯된 가구의 용도와 형태, 옛가구의 정신 및 조형미는 입식생활위주로 대체되어 전통가구의 설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자 및 판매자 뿐아니라 소비자의 의식구조 속에 민족의 주체성, 우리것에 대한 중요한 인식, 민족이나 지역적 특이성과는 동떨어진 국제불명의 무분별한 서구스타일로의 선호가 짙기 때문이다.

전통에서의 한국성은 문화의 자생력을 잃지 않고 '창조적인 역동성'을 보유할 때 가능해지며, 현대시대 나아가 미래와 어울리지는, 현 한국사회의 소비성향, 생산력과 기술에 합치되는 가구의 모습, 현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정서에 합치되는 가구, 지역의 고유한 분위기를 담는 가구일 때, 진정한 의미의 미래속의 우리가가 이루어지리라 보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계몽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적이미지의 창출을 전통성의 측면에서 찾아 봄으로서 이를 현대의 개념적 특징과 접목시켜 도출함으로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로 하며 기존의 발표되었던 실제작품들을 통하여 그 적용에의 가능성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4-2. 전통적요소의 적용방법

4-2-1 전통가구에 근거한 재해석

먼저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을 위하여 전 항에서 제시한 방법을 기준으로 전통가구의 실제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를 수렴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기준 -디자인 구성이론-을 통해 표현의 의미를 선정한다. 즉 현대적 표현을 위한 인자결정 요인들을 찾아 개념언어로 도출하여 현대의 가치관 및 미적감응성과 접목시킴으로서 시각적·형태적으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전통가구를 근거로하여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과정이다. 이는 마치 도시환경에 있어 옛 것과 새 것이 맺는 관계에서 중첩과 침투¹⁹⁾로 표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겠다.

전통가구의 특성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는 개념언어로는 자연성, 담백함, 단아함, 견실한 구조미, 조화와 균형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본 고에서의 개념언어의 도출은, 전통가구에 대하여 객관화 된 표현개념을 표현어휘로 정리하여 현대인들이 조선시대 목가구의 표현대상자료로 제시한 유영희의 '조선시대 사랑방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적 표현에 관한 연구' (1986)를 참고로 하였다. 그는 47개의 표현어휘를 결론으로 정리하였으며 본 고는 이를 기초로하여 과거 이종석(1986), 배만실(1983), 박영규(1982), 천병옥(1978)씨 등에 의한 연구에서의 그들 평가를 참고로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²⁰⁾

이와 같이 분석유추한 전통표현의 방향을 기초로하여 현대가구디자인에 대한 적용으로 전개 발전시킬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는 꾸밈과 장식에 없는 간결성, 명쾌성, 균등성, 순수성, 질서성, 합리성 등으로 표현되던 모더니즘시대를 지나 탈근대화의 역사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과거로의 복귀와 디자인에서의 의미추구의 다양화된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15)이호진, 김득선, 건축조형사교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7, p.149

16)송은아, 한국전통성에 기초한 리조트호텔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

17)임석재, '하치파치와 전통의 잡동사니', plus제125호, 1997/9, p.157

18)이호진, 김득선, 1997, pp.149-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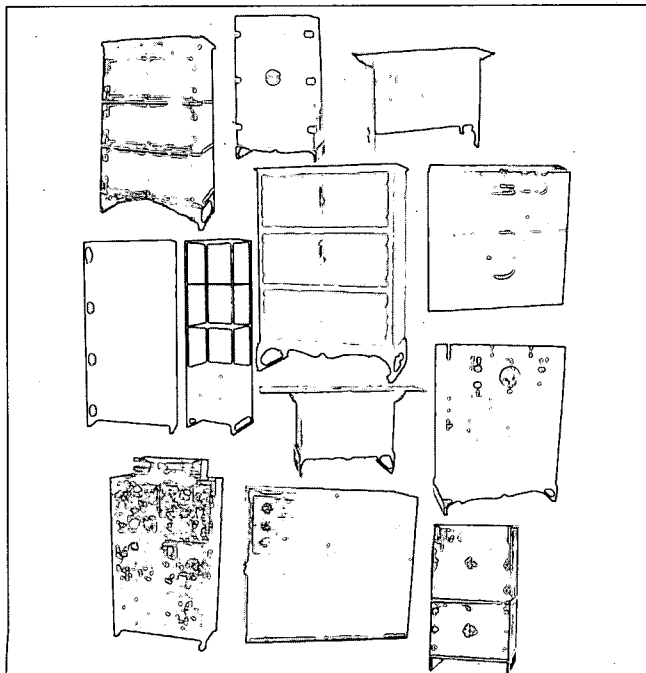
19)도시환경의 아름다운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91, pp. 6-8.

20)유영희, 1986, p.49, pp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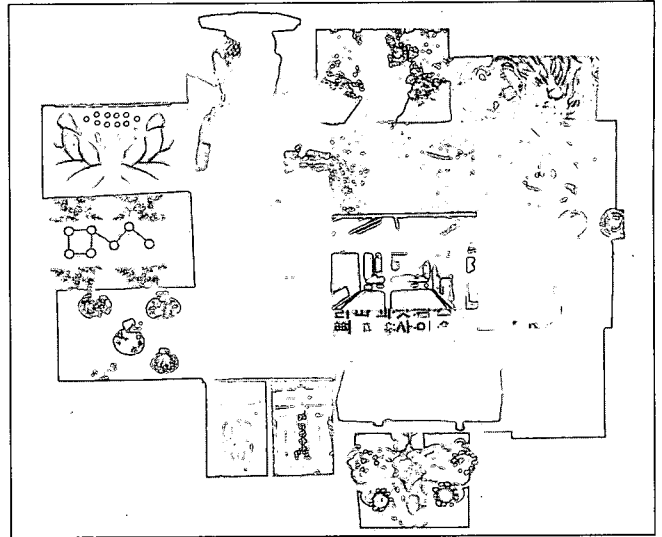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들과 맞물려 과거의 전통요소의 구체적 적용은 나무자재가 지닌 재료의 자연스런 결과 질감 및 멋의 구현, 절제된 인공미, 색상과 주재료의 자연성, 단순한 형태, 형태에 대한 지나친 기교나 장식을 최소화하고 형태자체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미니멀리즘적 표현, 소재 결정의 경제성과 당위성, 입식위주의 생활로 변화하였으나 인체공학적 측면과 전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크지 않은 적절한 크기와 비례미, 선과 면이 이루는 경쾌한 구조미를 살리면서 void와 solid의 대비조화시도, 다양한 용도로의 변화추구, 비례적 안정감, 형태구성의 시각적 안정감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에 현대적 구성미를 살림으로서 시대적 감각에 부응하는 전통 가구로 접근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1, 참조>

<표 1> 전통가구에 근거한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

개념언어	의미	현대가구에서의 적용방향
자연성	· 인위적인 기교를 피하고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노력 · 재료자체의 성질에 충실 · 효과적인 무늬결의 사용 · 담백한 질감 표현 · 자연적 소질과 성량 · 무기교의 자연미	· 재료자체의 자연스런 멋 · 나뭇결 · 절제된 인공미 · 색상과 주재료의 자연성
담백함	· 소박하고 경쾌한 품성의 인격과 어울리는 따뜻한 담백한 품격의 가구 · 단순미, 간결미 · 내용과 형식에서 단순함을 지향하는 정신 · 생활에서 우러나는 형태	· 단순한 형태 · 형태에 대한 지나친 기교나 장식의 최소화 · 형태자체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미니멀리즘적 표현 · 소재결정의 경제성과 당위성
단아함	· 인간적 척도를 헤아릴 수 있는 크기와 내용 · 아담한 외관 · 친근감 있는 스케일 · 좌식생활구조에 적용된 적절한 비례감	· 좌 · 입식 공용으로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크기와 비례
견실한 구조미	· 간결한 선과 명확한 면을 이루는 골재구조와 판재구조의 견실성 · 구성구석 성실함을 다하는 결구	· 선과 면이 이루는 경쾌한 구조미를 강조
조화와 균형	· 입면구성의 정연한 질서로 안정감 추구 · 세련된 조형감각으로 균형을 이룸	· Solid와 Void의 대비조화 · 현대적 구성비 · 재료자체에서 오는 색의 대비조화 · 비례적 안정감 · 형태구성의 시각적 안정감 ·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의 변화



<그림 1> 전통가구의 예
출처 :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그림 2> 전통이미지 collage
출처 : 도시환경의 아름다운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91. 10. 31-1992. 2. 20

4-2-2. 문화적 context에 기초한 상징과 유추²¹⁾

이는 과거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 심상들 즉, 전통 모티브의 표현어휘를 이용한 상징적 형태로의 접근방법이다. 전통성의 현대에의 적용과정에서 형태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새로운 조형언어가 기존 콘텍스트의 시각적 특성과 동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시각적 연속성을 통해 시각적인 조화를 이룸을 뜻한다.

이는 가구의 형태구성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유형적으로 관계하는 것인데 콘텍스트의 구성요소중 물리적인자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징과 유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 상징

상징이란 표식, 기호, 배후에 무엇을 제시하는 의미형상으로 넓은 뜻으로는 우의, 의인의 뜻도 된다. 이론적으로 보아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가지 사항이 어떤 유사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것이 상징작용의 특성이며, 그것은 직접적상태 그대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확대된 보편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징에는 '의미'와 의미의 '표현'으로 동시에 구별될 수 있다.

상징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영역과 지각과 연상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건축 및 조형의 상징성에 관한 문제는 의미와 의미전달 그리고 문화적상황과 그 실제적 표현으로서 내재된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명시적 상징-형이하학적 상징으로 자신의 맥락내에 보유하고 있는 특정의 모티브를 참조하여 형태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직접적인 상징과 암시적 상징-형이상학적 표현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 정신이나 의미가 깃든 상징-으로 구분된다.

전통성표현은 단순한 과거의 모방이나 답습에서 벗어나 형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야 함에 한국의 전통성을 전달하는 방식도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명시적 상징보다는 주로 유추적 인식에 대한 전달방식인 암시적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다.

B. 유추

21)이정민, 전통 주거공간의 조형적 재해석에 대한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대 산미대학원, 1995, pp.41-46

사물의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 등을 포착해서 표현된 형태에 접맥시키는 과정을 유추라 한다.

유추란 어떤 의도와 연결된 상징성의 표현으로서 상징체표출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징적구현과 유추적 디자인은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로서 어떤 의미의 측면이 형태와 연결되어 조형물이 판조자에 의해 어떤 의미를 지닌 형태로 해석될 때 이를 상징적의미를 지닌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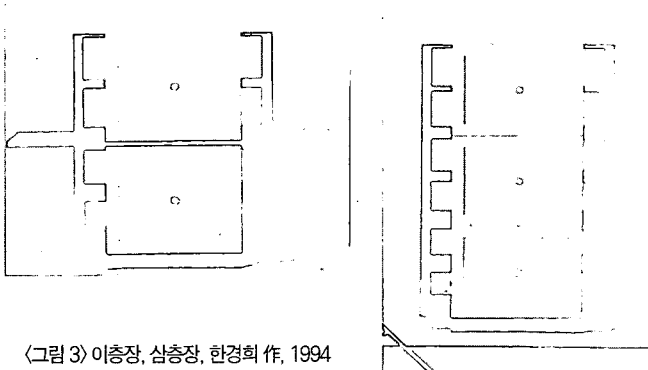
사실 우리의 전통은 계승되어지지 못하였으나 반면 우리의 의식은 의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져 옛사상과 사고방식에 의한 생활풍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특성으로 부각되는 많은 특징을 유출할 수 있는 문화적 인자는 우리주변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온 역사,종교,문화 등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시켜온 구체적 기억상속에서 상징이미지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문화형태로 만들어내어, 이를 문화적 연속성으로 도입 전통성구현에 collage하거나, 재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선 시각적 차원에서 '한국적 이미지'가 인지되도록 내적처리과정을 통한 전통적 요소의 단순화 작업을 시도한 뒤 과거전통요소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추를 통하여 현대가구에 접목시킴을 우선으로 한다.

4-3. 적용사례

4-3-1. 전통가구에 근거한 재해석사례

a. 2.3층장(그림 3), 재료 : 흑단, 단풍나무, 크기 : 1400×420×1725, 1500×400×850

이들 가구는 과거의 2.3층장의 형태에서 각재와 판재가 이루는 간결미, 미름칸·취벽칸·문판이 보여주는 면구성 그리고 조화와 균형미를 가하학적 순수형태의 근대적 구성미로 재구성한 것이다. 막혀져 있는 부분과 열려진 부분의 대비, 재료에서 오는 색의 대비를 이용하여 조화된 모습을 띄고 있다. 각층은 모두 분리되어 수평면으로 연결하여 문감으로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용도와 형태의 다양함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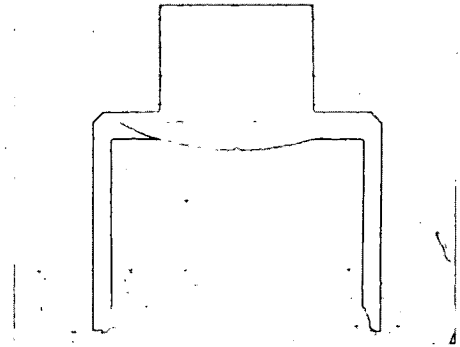
〈그림 3〉이층장, 삼층장, 한경희作, 1994

b. Console table(그림 4), 화류 흑단, 1100×450×1250

과거 가계수리형태를 현재의 table형태에 놓음으로서(상하분리가능) 경대로의 사용이 가능토록한 가구이다. 상하 몸체가 이루는 딱딱함을 설함의 둥근형태가 완화시켜주고 있으며 과거 문판과 몸체를 연결하던 금구장식을 목재로 대체시키면서 과거 구조적 장식 요소를

이용하여 전통요소로 기호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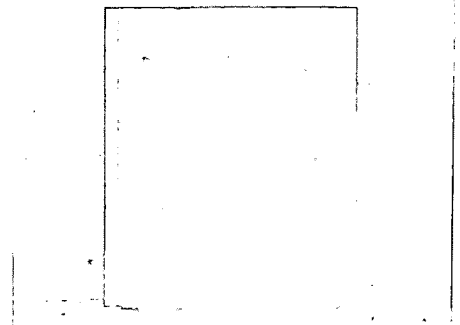
간결,명료함과 함께 서구적인 비례감속에 자연스런 목재 무늬결로 담백함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림 4〉console table, 한경희作, 1994

c. 小 cabinet(그림 5), 피목, 950×31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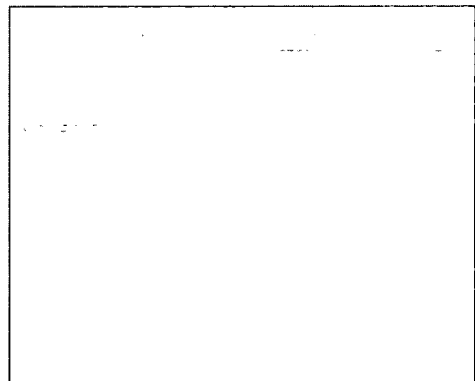
문감을 세로로 쌓은듯 비교적 단순한 형태에 피목이 지닌 무늬결을 최대한 살린 수납용가구이다. 형태에 대한 기교를 피하면서 또 앉거나 섰을때의 사용에 부담없는 크기는 단아함과 담백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5〉小 cabinet, 한경희作, 1994

d. 4층 탁자장(그림 6), 단풍나무, 1700×300×1300

각재로 이루어져 좌우사방으로 열린 형태였던 과거의 탁자장을 판재로 바꾸어 명확한 선과 면을 이용하여 열려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층은 분리가능토록 제작되어 공간분리용, 벽부착용으로 층수를 조절하여 사용가능토록 디자인 된 것이다. T자형 결합부에 역시 T자형 목재장식으로 전통요소를 기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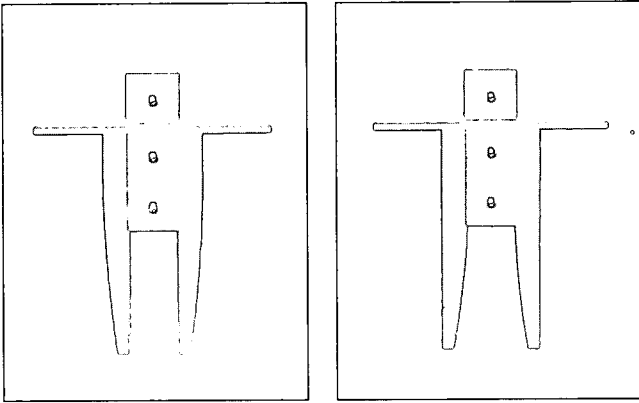


〈그림 6〉4층 탁자장, 한경희作, 1994

4-3-2. 문화적 context에 기초한 상징과 유추사례

a. Console table(男과 女), <그림 7> 단풍나무, 800×37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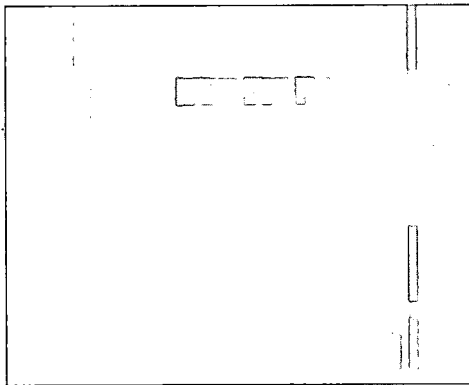
쪽도리,사모관대를 쓴 남녀모습의 의인화작업으로 각기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한쌍의 가구이다. 마치 현관 앞에서 맞이하는 사람으로서의 형태는 현대의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을 대신하는 모습이다. 간단한 소품의 수납과 장식을 겸하고 있다.



<그림 7> console table, 한경희 作, 1994

b. Cabinet(사각형의 반복과 조화속에서), <그림 8> 단풍나무, 1330×400×1350

전통약장에는 기본 모듈이 있으며 과거의 약재를 넣던 이 기본상자는 현대에 들어와 집안의 여러소품들 수납에 이용될 만한 것이다. 기본 사각형을 이용하여 설합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서 다양하게 사용토록 디자인 한 것으로 하단부는 여단이문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가구의 이미지는 마치 도포자락을 입고 양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시키고 있다. 설합의 손잡이는 자연속에서의 조약들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장식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림 8> cabinet, 한경희 作,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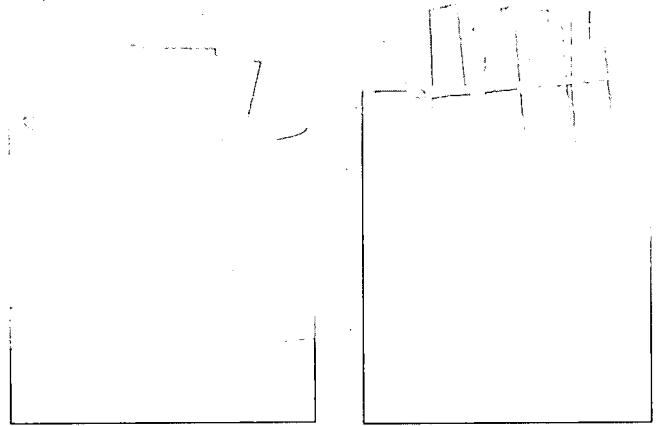
c. Console table <그림 9>, 괴목, 화류, 1000×500×1140

과거 복 주머니 형태를 이용하여 console table로 변형시킴으로서 작은 기물의 형태변화를 시도한 가구이다.

d. 탁자장 <그림 10>, 홍송, 1600×430×1600

과거 전통악기의 박(拍)을 이용, 여러개가 한조를 이루어 소리를 내듯이 이 가구에서도 하나의 기본형태를 8장으로 만들어 가로,세로로 꿰어맞춘 책꽂이 겸 장식용탁자장이다. 단순하면서 동시에 견고함을

나타내는 한편, 비균형속에 눈의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시각적인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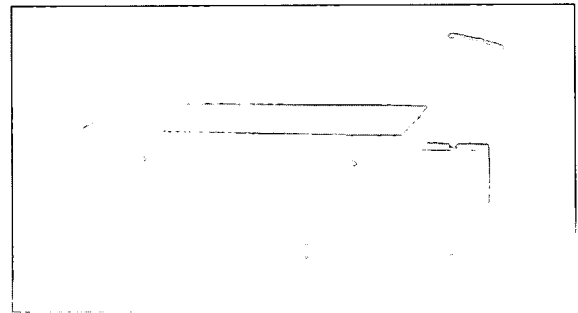


<그림 9> console table, 김현경 作,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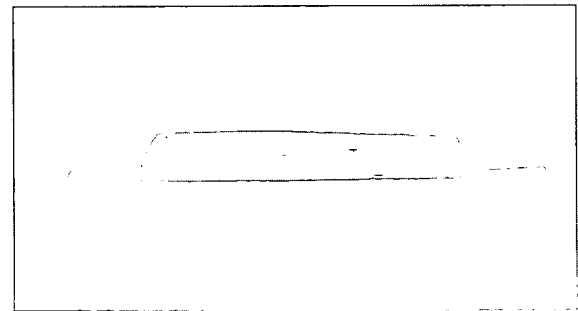
<그림 10> 탁자장, 최혜경 作, 1997

e. Audio stand(태초의 잔상) <그림 11>, Table <그림 12>, 1600×520×790, 1920×740×350

과거 전통의 여러기물(숯대, 다다밧돌 등)을 collage하여 한국성을 상징화하고 있다. 인위적인 가공미보다는 다듬지 않은 듯, 자연속의미를 미완성속의 완성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1> audio stand, 최병훈 作, 1995



<그림 12> table, 최병훈 作, 1995

5. 결론

서구 근대문명의 유입과 함께 시작된 한국사회의 근대화작업속에서 서구는 현재 우리에게 내면화되었고, 과거(전통)는 외면화되어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진솔한 모습과는 달리 국적불명의 사치성 가구가 하나의

소비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적 기준에 의해 부정되고 왜곡되었던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의 맥락을 회복하면서 민족 내지 지역적 특이성을 지닌 자기회복의 노력을 추구하여 한국성을 가구에 적용시키는 작업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속에서의 우리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이같은 작업은 작품 발표의 사례를 통하여 개인별로 간간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가구에 표현하는 접근방법의 틀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해본다.

과거 전통가구는 온돌이라는 좌식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아 그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남녀 유별이라는 관념하에 생긴 분리된 생활공간에 따라 가구의 유형이 다름을 볼수 있었다. 특히 사랑채의 선비 문화적 요소는 조선시대 가구의 성격을 분명히 결정지워주는 중요한자였으며, 이의 우수성은 현대적 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랑채의 가구는 현대화 작업으로 더욱 가깝게 시도될 수 있는 예이며 바람직한 작업인 것이다. 또 안채와 사랑채가구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상반된 주거공간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하면서 동시에 조화시키고 융화해가는 동질성을 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과거와 조화되고 융화해가는 모습으로 미래에로의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 전통가구의 형태적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대가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개념언어로는 자연성, 담백함, 단아함, 견실한 구조미, 조화와 균형 등으로 각기 현대가구의 구조와 기능에 맞추어 구체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재와 과거의 가구모습이 조합되면서 다소 직설적인 변안의 모습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조형감각이 내포된 전통요소들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가구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정서를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속성의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보다는 간접적인 유추의 과정이다.

그러나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적이미지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통요소들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디자인의 내적처리과정을 거쳐 재창조된 즉 부호화된 기호로 표현해야 하며 이점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한국전통성의 현대적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확실한 방법론의 제시라기보다는 미흡하나마 그 가능성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추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작품 발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의 제도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소비자·생산자의 의식구조의 계몽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가치의 진솔한 표현과 한국고유의 문화적 이미지를 현재의 삶속에 재창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시성속에서 한국성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가구를 만들어내어 미래 후손에게 전통을 물려주고 또 국제성에 부응하는 가구에로의 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2.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3.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 인간사회 그리고 자연을 생각하며, 미진사, 1997
4.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5.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6.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7. 이호진, 김득선, 건축조형사교론, 산업도서 출판공사, 1997
8. 김경옥, 이조시대 사랑방 가구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9. 김영순, 한국의 전통적 미를 적용한 현대거실가구안락의자를 중심으로, 이대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0. 서나영, 한국적 이미지에 의한 장식미술디자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 1호텔 사례를 중심으로, 이대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1. 송은아, 한국전통성에 기초한 리조트호텔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12. 유영희, 조선시대 사랑방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적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주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13. 이나영, 한국 현대건축의 한국성표현에 관한 연구 -컨텍스트 측면에서 -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14. 이미애, 컨텍스츄얼리즘(contextualism)적 접근방법에 의한 한국적 공간 조형의 실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대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5. 이정민, 전통주거공간의 조형적해석에 의한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공간론 및 형태론적 접근에 의한 도로변 휴게시설 계획 - 이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16. 이풍미, 이조목공예의 기능과 형태미, 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17. 김봉열, '실천적 이론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plus 제121호, 1997. 5, pp.168-171
18. 임석재, '하치파치와 전통의 잠동사니', plus 제125호, 1997. 9, pp.156-163
19. '전통과 현대, 옛것과 새것과의 관계' plus 제126호 1997. 10, pp.184-187
20. 도시환경의 아름다운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91. 10. 31-1992. 2. 20
21. '최병훈 art furniture' 갤러리 부산, 1995. 4. 27 - 5. 12
22. '한경희 가구전' 한마당, 1994. 11. 11 - 19

(접수 : 1997. 11. 4)